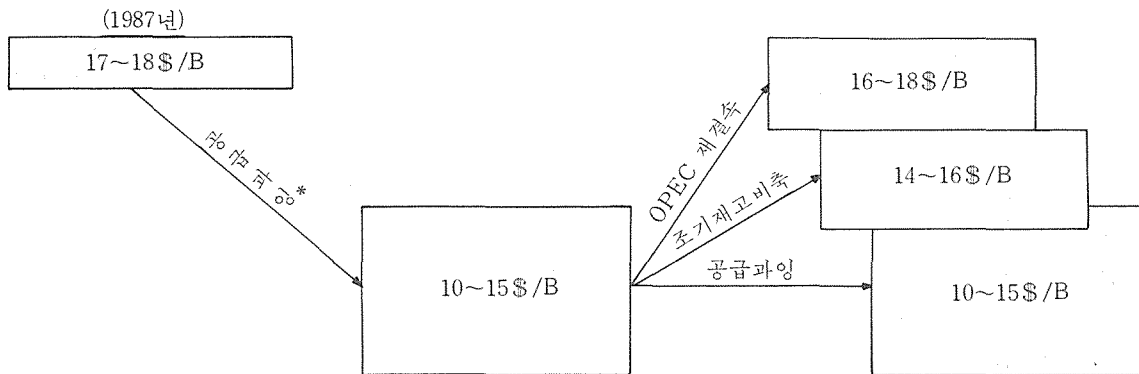


88년 국제석유시장 전망

—에너지경제연구원—

국제油價는 한차례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하락이 불가피. 그후, 油價는 소비국의 在庫전략과 OPEC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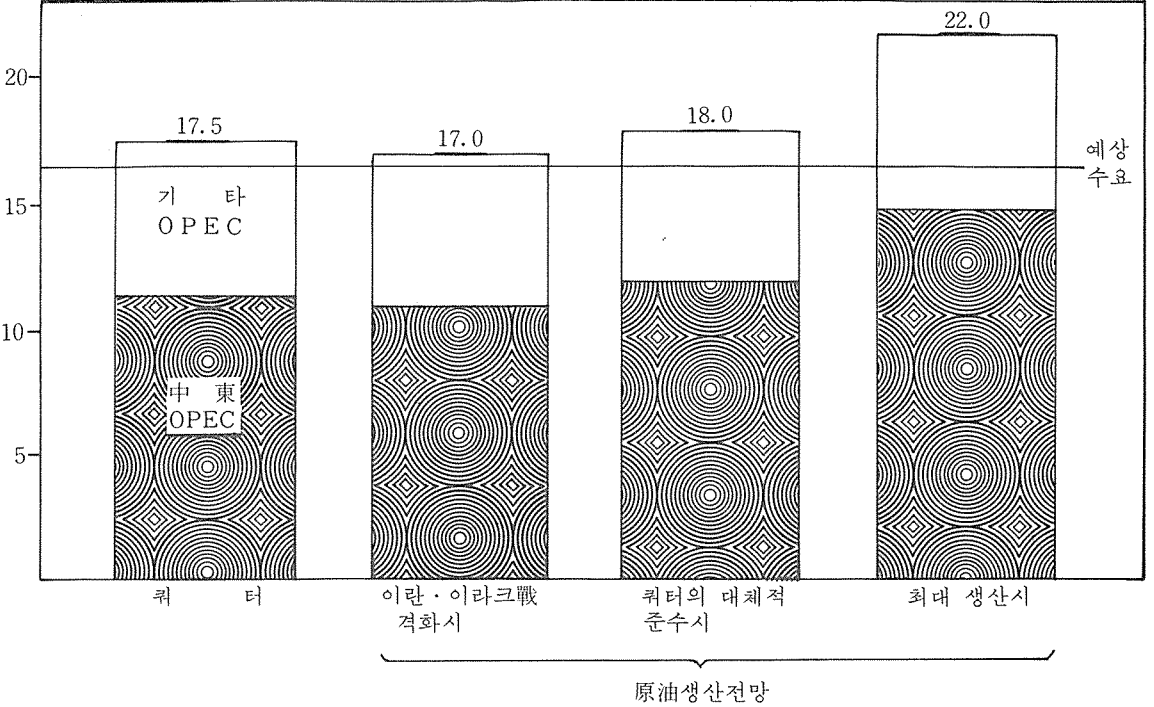
註 : *OPEC 原油에 대한 世界需要는 석유소비정체, 非OPEC중산, 石油재고과잉등으로 인하여 약세 (16.6백만B/D) 일 전망인 반면, OPEC原油생산은 약 18.0백만B/D로 예상됨.

- OPEC(석유수출국기구)原油생산(약 18.0백만B/D)은 예상수요를 약 1.5백만B/D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제油價는 한차례 경쟁적 하락을 거듭할 예상임. 公示價格이 배럴당 17.42달러인 두바이 原油는 12월 중순경 14달러수준에서 거래되었음.
- 이같은 低油價는 소비국에게 조기원유구매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, 아울러 OPEC에게는 쿼터 감축을 위한 재갈축의 필요성을 심어줄 것임. 이러한

-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油價는 반등세를 보일 예상임.
- 소비국이 原油를 早期에 구매한다면 油價는 배럴당 15달러이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음. 그러나, 조기원유구매는 과잉재고의 지속을 초래, 하반기 油價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한편, OPEC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갈축의 다짐을 보여 쿼터감축을 실시한다면 油價는 배럴당 16~18달러로 회복될 수 있음. 또 한번의 低油價 경험은 86

OPEC原油의 과잉공급은 불가피할 전망

OPEC생산(백만B/D)



년 하반기 때와 같이 OPEC합의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- OPEC가 실질쿼터(17.5백만B/D)를 대체로 준수할 경우, 原油생산은 약 18.0백만B/D로 예상됨.
 - 中東지역의 원유생산(0.4백만B/D)은 쿼터예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 - 아랍에미리트, 카타르 등은 상승적 쿼터위반국이어서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음.
- OPEC가 단기적으로 원유생산을 최대치로 유지할 경우, 原油생산은 22.0백만B/D(생산능력의 80%수준)에 달할 전망. 이같은 사실은 86년 시장점유율 경쟁이 밝혀진 바 있음.
- 반면, 페르시아灣전쟁이 격화될 경우, 이란과 이라크의 산유량은 각각 약 0.5백만B/D씩 감소될 것으로 보여 OPEC산유량은 17.0백만B/D 수준이 될 전망.
- 石油業界는 현재 재고방출전략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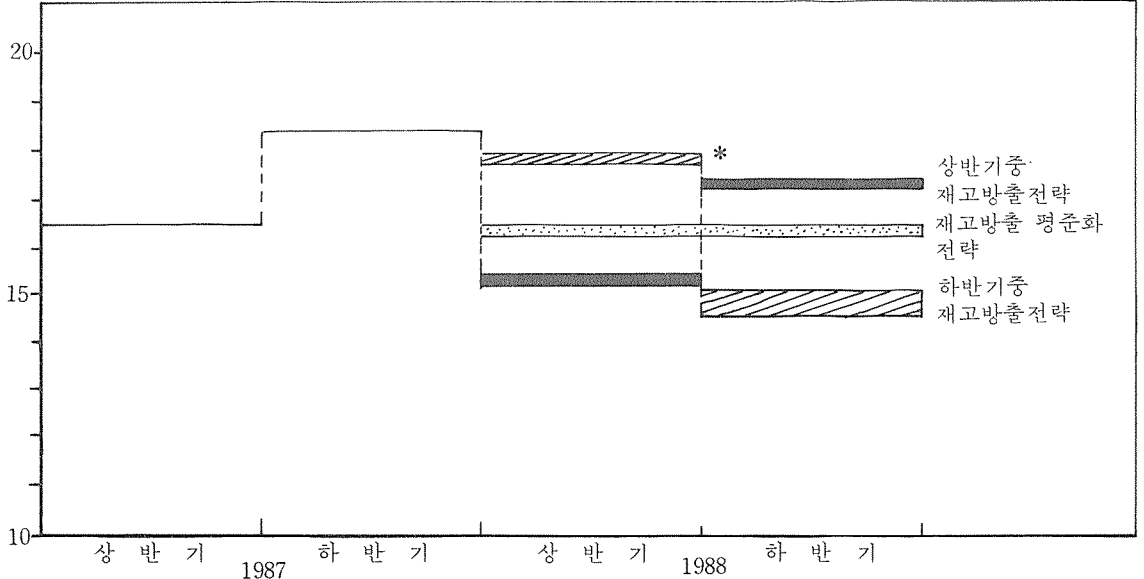
첫째, 88년 전반에 걸쳐 油價하락을 예상하는 업계는 재고보유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상반기(주로 1/4분기중) 재고방출, 하반기 재고비축전략을 선호.

둘째, 88년 하반기중 油價회복을 예상하는 업계는 상반기 재고비축(즉, 原油의 조기구매), 하반기 재고방출 전략을 선호.

- 예년과 유사한 상반기 재고방출전략이 실시될 경우, OPEC수요는 상반기 15.2~15.5백만B/D, 하반기 17.3~17.5백만B/D로 예상.
- 반면, 상반기 재고비축전략이 실시될 경우, OPEC수요는 상반기 17.8~18.0백만B/D, 하반기 14.6~15.1백만B/D로 예상.
- 이같은 대조적 재고패턴은 극단적인 것이어서, 실제로는 이들 양자의 혼합형태로 나타날 예상임. 따라서 88년도 上·下半期 OPEC수요는 전년보다 평균화될 가능성이 높음.
- OPEC 분위기는 현재, OPEC의 결집력을 손상시키고

소비국의 과잉재고방출전략은 88년 상·하반기 OPEC수요를 결정하는 주요인

OPEC수요(백만B/D)



註 : *상한수요는 소비국이 페르시아灣 사태에 대비하여 재고방출을 다소 유보하는 경우를 반영.

있음.

- 88년 상반기 실질쿼터는 예상수요(16.6백만B/D내외)를 초과함.
- 이란, 이라크, 쿠웨이트등은 이미 배럴당 약 90센

트 할인판매하였으며, 사우디아라비아, 나이지리아 등도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여 자구책을 모색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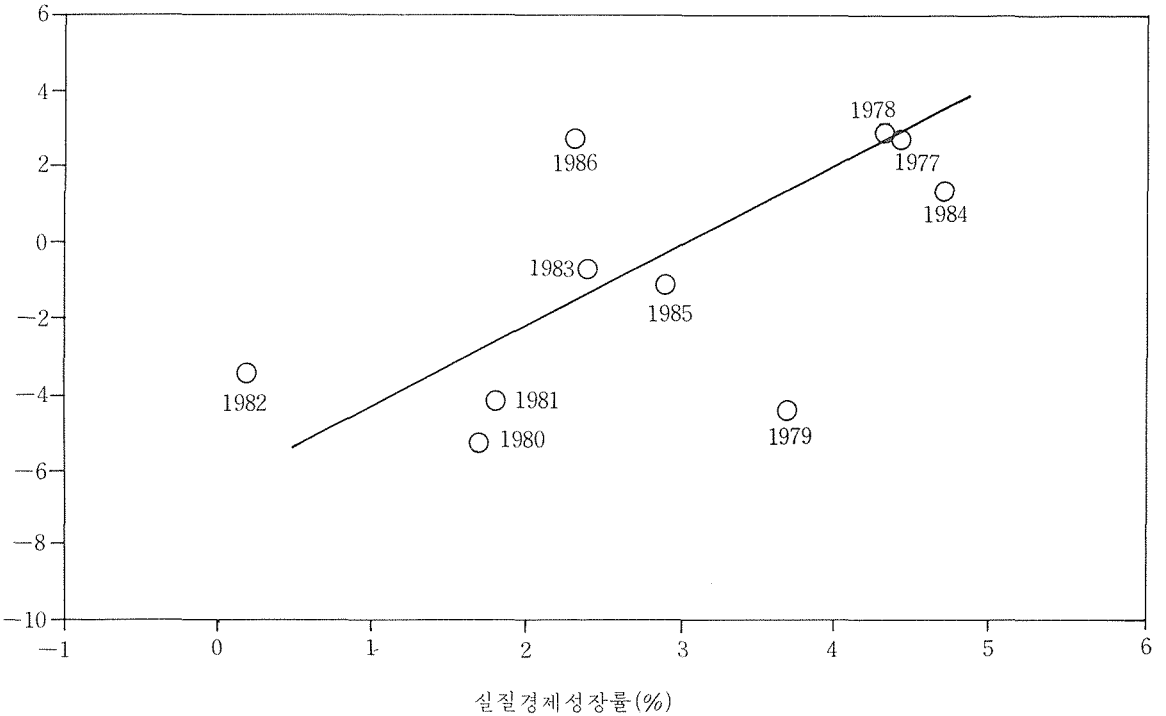
- 메카사태를 비롯한 사우디-이란間 대립은 과거의 협조체제를 와해시킴.

OPEC 結集力은 현재 약화되고 있으나, 그 회복이 전혀 불가피한 것은 아님.

	OPEC 분위기의 차이점 비교	
	1987년 상반기	1988년 상반기(예상)
● 石油 수급 - OPEC 수요 - OPEC 쿼터	16.5백만B/D 15.8백만B/D	16.6백만B/D내외 17.5백만B/D
● 회원국의 협정준수 의지	公示價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 감축도 불사	시장몹을 유지하기 위해 할인판매를 고려중
● 사우디의 기본전략 - 對이란 관계 - 이라크의 쿼터증대 요구에 대한 지지도	협조체제 불분명	메카사태후 대립 명백히 지지
● 이란의 기본전략 - 희망유가 - 對 OPEC 관계	18\$ / B 협조유지	20\$ / B 이상 독자노선 불사

石油소비는 88년중 세계경기의 침체로 전년수준(48.1백만B/D)을 넘지 못할 전망

석유소비증가율(%)



• 그러나 OPEC는 石油收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생산 감축=18\$/B 유가방어전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.

- OPEC는 86년과 같은 생산증대=油價폭락사태를 피하려고 할 것이며,
- 87년 상반기 때와 같이 생산감축=18\$/B 油價유지실적을 반복코자 할 것임.

• 세계경제는 88년중 전년보다 0.5% 포인트 낮은 2% 성장에 그칠 전망.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, 세계경제는 石油사용의 증대없이 2%성장을 달성하였음.

•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石油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석유집약도(소비량/생산액)의 감소 때문임. 88년도 石油집약도는 87년의 추세를 반영, 2% 감소할 것으로 예상.

• 노르웨이, 이집트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오만 등은 유가 안정을 위해 石油생산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, 실제로는 연간 7~9% 증산하고 있음.

非OPEC의 石油생산은 증가될 전망

(단위 : 백만B/D)

	非OPEC 石油생산		
	1986	1987	1988
OPEC 협조국*	5.6	6.1	6.5
OPEC 非協調國	19.6	19.4	19.2
美 國	10.3	10.1	9.8
英 國 등	9.3	9.3	9.4
非 OPEC 計	25.2	25.5	25.7

註 : *노르웨이, 이집트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오만

• 반면, 美國의 石油생산은 영세유정의 생산감소로 연간 0.3백만B/D씩 감소하는 추세임.

• 英國등 기타 非OPEC 회원국의 石油생산은 油價하락으로 인한 증산기반의 한계로 답보상태임. ☒